

지역 소식통

고창군, 3~4월 여행
인센티브 대폭 확대

고창군이 지역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관광사업 조기 추진과 함께 3대 관광정책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시티투어버스가 오는 3월부터 운곡습지와 선운산(동백꽃) 연계노선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4월 첫째주에는 벚꽃 축제, 4월 둘째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정보라발축제 등으로 구성된다. 해설사가 함께 동승하여 관광차별 해설, 맛집 소개 등 고창 관광에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일 관광의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지급액(내국인 20명 이상 1인당 1만원, 버스임차료 1대당 30만원, 수학여행단 20인 이상 1인 1만원, 외국인 10명 이상 1인 5000원)의 2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정읍시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 9명과 문화행정국장, 세정과장 등 내부위원 2명 포함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침해 받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국가예산 확보 협치 '맞손'

정읍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30여명 참석 국비 확보 방안 · 주요 현안 사업 논의

정읍시가 윤준병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21일 수성동 주민센터 컨벤션홀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당·정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가예산 대응에 결의를 다지 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2026년 정부부처 예산안에 일부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국가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사업 △국가 바이오자원 평가·실증지원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정읍시가 윤준병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구축 △광역 공동 농기계 임대·수리센터 신축 등 34건(국비요구 921억원)의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경제악화와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긴축재정은 올해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지자체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초기추진 상황 속 국가예산 확보는 발빠른 사전준비와 간절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현안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업"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무장읍성 주변 문화·체험공간을 특색있는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장읍성 역사문화 현장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 "문화·체험공간, 특색있는 관광거점 만들 것"

심덕섭 고창군수가 "무장읍성 주변 문화·체험공간을 특색있는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지난 21일 오후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2018년 사업을 시작해 무장읍성 일원에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입한 관광기반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거점 조성사업이다.

이날 북함문화센터와 한옥체험관 등 2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무장면민들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무장면은 해변관광지(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와 신악·문화관광지(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유적)를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만큼, 다양한 관광수요를 사로잡을 길러콘텐츠 발굴에 초점이 맞춰졌다.

군은 현장에서 건의된 민원이나 현안 사항은 신속히 파악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불편 및 건의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장읍성 주변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특색있는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협심도진 2025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성료

12개 읍면 현장 소통 군민 건의사항 263건 수렴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1일 진서면을 마지막으로 위도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대해 협심도진(協心圖進) 2025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1일 진서면을 마지막으로 위도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대해 협심도진(協心圖進) 2025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한 이번 희망소통대화는 지난 11일 주산면을 시작으로 하루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형식과 격식을 최소화해 군민과의 거리감 없는 대화를 진행했으며 경로당 현장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불편사항을 해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수변도시 관할권 확보 총력

부안군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관할권에 대한 첫 심의가 열린 가운데 권익현 부안군수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군의 정당한 관할권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새만금

지역의 첫 계획도시로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군과 김제시, 군산시 등 3개 지자체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지난 30년간 부안군민들은 묵묵히 감내하면서 희생해 왔다"며 "이번 심의에서 군의 정당한 귀속 논리를 적극 펴려해 군의 행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97.7% 수령 완료

정읍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오는 28일 마감된다.

시는 장기 출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5주 연장했으나,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전체 시민 10만 2647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했는데, 2월 20일 기준으로 97.7%인 10만 318명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정읍시탕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약 40억원이 소비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다.

현재까지 사용된 지원금은 약 25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80%에 해당하며, 주요 사용처는 마트, 음식점, 주유소, 차량 정비소 등 생활 필수 업종으로 조사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